

요트인 및 협회 임직원께 드리는 부산요트경기장 정상화 촉구 호소문

부산요트경기장은 '88년 서울올림픽 요트 경기를 거행하기 위한 경기장으로서 국제 규격에 맞추어 건설되어 서울올림픽 당시 별도의 개폐회식이 거행된 국내 최대의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올림픽 요트경기장이며,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4년 동안 요트 선수, 동호인 및 4만여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요트경기장 수질 개선을 위하여 금사공단 업체(센트랄(주)등)의 창원 이진 등 부산 시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완성된 소중한 시설입니다.

최근 민간투자 재개발사업이 다시 착수되었으나, 국내 최대의 요트경기장이 시민들의 친수공간이자 요트인들의 실력 향상의 터전이 아닌 개발업체의 상업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요트인 여러분께서 부산요트경기장 정상화운동에 동참하시어 미려한 저허들의 정상화 촉구 운동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현대산업개발 재개발 방향

- 현대산업개발의 계획은 현재 요트경기장의 수용능력을 해상 364척을 293척으로, 육상 1,000척을 155척으로 축소하여 기존시설의 요트 수용능력을 448척으로 산정하고 재개발 후 79척이 증가한 567척의 수용능력을 갖는 것으로 조작·발표하였습니다만, 실제 재개발이 완료될 경우 오히려 797척의 수용능력이 감소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 또한 현대산업개발의 계획 중 요트 하우스 225척 계류는 모터보트를 아파트처럼 적재하는 방안으로서, 돛대가 있는 경기용 요트를 계류하기 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종래 1,000척을 수용할 수 있는 육상 계류장은 974척이나 감소한 26척만 계류가 가능하며, 육상 계류장 공간 대부분은 영리 목적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 수영만 요트 경기장재개발 민간투자 사업 사업추진 계획 (아이파크 마리아 주식회사, 2004년 09월 공청회) 참조

- 이와 같이 현대산업개발은 요트경기장을 더 좋은 방향으로 재개발한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실상은 상기한 바와 같이 대규모로 공공 체육시설을 축소시키고 향후 대규모 국제대회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기장을 파괴할 계획입니다.

육상 계류장과 크레인의 필요성

- 현재 부산요트경기장은 가용 크레인이 없어 요트의 진수와 회수를 위해서는 외부 크레인 차량을 불러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크레인이 있으면 상당수의 해상 계류 요트를 정비 및 수리가 용이한 육상으로 옮겨 해상계류장 수용 능력이 자연스레 증가할 수 있는데도, 현재의 계획대로 재개발할 경우 요트경기장의 요트 수용 능력이 대규모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고, 이는 결국 요트 발전에 막대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 요트경기장의 충분한 육상 공간은 평소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되고 큰 태풍이 올 때 해상에 계류된 요트들을 육상 양륙할 피난처가 됩니다. 육상 계류장을 철거 후 상업시설을 건축하게 될 경우 육상 계류공간이 없어 요트를 올리지 못하여 막대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례 : 약 20년 전 태풍으로 요트장 방파제로 파도가 월파하여 요트 수십 대가 침몰, 파손되고 요트경기장 계류 폰툰 대부분이 파괴되었음

상업용 요트의 이용 제한 필요성

- 현재의 요트경기장은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방만한 관리(불법 계류된 선박 단속, 전기 및 수도물 사용료 징수 및 주차비 징수 법제화 / 단속을 하지 않음)로 인해 무분별한 유람선 터미널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형 유람선(상업 요트)의 빈번한 입출항으로 인해 소형 무동력 요트의 항내 입출항이 위험한 상황이며, 상업 유람선과 요트의 충돌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 내에서의 영업용 선박운항 및 영업행위는 반드시 금지, 제한되어야 합니다.

요트경기장 시설 정비 방향

- 요트경기장은 제대로 관리되면 계류비만 현재의 2배 이상 거둘 수 있고, 주차비,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등 이용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면 부산시는 몇 배의 흑자가 가능함에도, 민자 재개발협약 하였고 개발 후 민간이 운영하게 되면 수익성을 이유로 계류비를 대폭 상승시켜 이용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해양스포츠 및 관련 산업의 위축이 예상됩니다.
-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기부 체납의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할 경우 30년 후에도 요트경기장은 지금과 같은 노후화된 시설만 남이 있을 것이고, 국내 최대의 올림픽요트경기장은 쇼펍몰의 부대시설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소중한 체육시설인 올림픽요트경기장의 민간업자 주도 재개발을 중지하고 재검토하여, 아래의 개선사

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올림픽 요트경기장의 핵심 시설인 1,000척 규모의 육상계류장과 슬립웨이를 보존시켜 국제요트대회개최 및 요트 동호인과 선수들의 안전한 해상 활동을 보장하라.

2. 크레인을 포함한 진수·회수시설을 확충하여 노후화된 요트경기장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라.

3. 요트 동호인과 선수들의 안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 내에서의 선박을 이용한 유람선 운항제한, 금지하라.

부산 요트경기장 정상화 추진 위원회